

◆ 7월 10일(금)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6. 7. 10.(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http://www.kcue.or.kr
--------------------------------	--

문의 : ☎ 02-6919-3901 고등교육연구소장 : 강낙원 / 정책연구팀장 : 김정희 / 담당 : 조혜진 선임연구원

대교협, '대학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 구축 방향 모색' 전문가 토론회 개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정 한양대 총장, 이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에서는 7월 10일(금), 서울역 비즈허브 서울센터 회의실에서 '대학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 구축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 '대학의 정신건강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윤명숙 전북대학교 대외취업부총장은 대학생, 직원, 교수 등 대학구성원 모두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포괄적 대학 정신건강 정책(Whole University Mental Health Approach)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 스크리닝과 조기 선별 및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학구성원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 결과, 대학구성원 모두가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위험 양상은 대학생, 직원, 교수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각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 또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정신건강 지원 자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대학생, 직원, 교수 등 대학 구성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대학 간 정신건강 지원 역량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화된 운영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그리고 안정적인 예산과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 대교협 이경희 사무총장은 “대학 정신건강 지원체계가 대학생 중심의 사후 상담에서 벗어나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예방과 조기 발견, 위기 대응, 회복 지원,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통합적 지원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 구성원의 정신건강은 대학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과제이며, 정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대학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 구축 방향 모색’ 종합토론 요지. 끝.

**‘대학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 구축 방향 모색’
종합토론 요지**

- 김형기 전국대학교 학생처장협의회 회장(평택대학교)은 정신건강 정책의 대상을 학생, 직원, 교수를 모두 포함하는 대학 전체 구성원으로 확대하고 소속감과 포용성, 웰빙 문화를 강조하는 조직문화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교직원을 위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국가 차원의 대학 정신건강 가이드라인 마련, 예산 및 전문인력 지원의 법제화를 제안함
- 남숙경 국민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소장은 대학 구성원의 정신건강을 대학의 교육·연구·행정 환경과 조직 운영 전반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이를 위해 교육·연구·행정·조직문화·캠퍼스 환경 전반을 정신건강과 웰빙 중심으로 설계하고, 독립적인 예산과 전문인력을 갖춘 가칭 ‘대학 정신건강 지원센터’를 상설기구로 제도화할 것을 제안함
- 이동훈 전국대학교 학생상담센터협의회 및 한국상담심리학회 회장(성균관대학교)은 대학상담센터의 인력·예산·접근성 등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에 대학상담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전문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지원 대상을 학생에서 교원과 직원까지 확대하고, 예방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함
- 홍현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대학생이 성인이라는 이유로 국가 공공 정신건강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고 지적하며 대학생 정신건강을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대학생 자살 예방과 자살 시도 대응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표준화된 최소 대응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임호용 대교협 인공지능·학사지원팀장은 대학 상담 인력의 낮은 고용 안정성과 대학 간 지원 역량 격차,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사후 연계 체계 미흡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 이에 대교협 차원에서 공통 진단 도구 개발 및 배포, 대학 마음 건강 지원 역량에 대한 정기적 실태 조사, 우수사례 및 상담·위기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대학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